# 소설 '태백산맥' 무대 보성여관 복원

## 17억원 들여 … 7일 개관

## 조정래·임권택씨 등 참석

보성군 벌교읍 옛 보성여관(등록문화재 132호·사진)이 2년여 복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7일 새롭게 문을 연다. 개관식에는 소설가 조정래씨와 임권택 영화감독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보성여관은 부지 529㎡(160평)·건물면적 500㎡(150평) 규모로 1935년 건립된 일본식 건축물이다. 건축 이후 6차례 수리를 통해 1층 일부가 변형됐지만 2층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보수공사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년간 국비와 군비 등 17억원을 들여 상가 등으로 변형된 집의 낡은 목조자재와 벽체를 대부분 뜯고 새 부재를 보충해 다시 조립했다. 일본 전통가옥 특징인 2층 다다미방 4칸도 단장을 끝냈다.

새 단장을 마친 보성여관 1층은 카페나 이벤트 공간, 숙박시설로 활용되고, 2층이나 별관은 연회장 등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전시실에는 벌교 역사와 보성여관의 옛모습 사진을 선보인다.

조정래씨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에서 보성여관은 '남도여관'으로 등장한다. 소설 속에서 보성·벌교 지주들이 회합하고, 경찰 토벌대장 임만수와 경찰 토벌대원들의 숙소로 묘사된다.

문화유산 국민신탁 이철재(42) 보존관리 팀장은 "앞으로 숙박체험과 카페를 운영하고 '태백산맥 문화관'과 연계해 정기적으로 매월 1회씩 옛영화 상영 등 공연을 통해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여관은 '태백산맥 문학기행 길' 코스에 위치해 현 부자네집·소화다리·김범우 집 등과 함께 탐방객들의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글·사진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 주재년 열사 기념관 개관

소년 항일 독립유공자 주재년(1929~1944) 열사 기념관이 지난 30일 여수시 돌산읍 금성리 작금마을 생가터에 개관했다. 기념관은 본동 1동과 대문간 1동, 비각 1동 등으로 구성됐다. 〈여수시 제공〉

# 구례 오미지역 '슬로시티' 지정되나

〈토지면·마산면〉

## 전남도·군, 신청서 제출

전남도와 구례군은 자연과 전통이 살아있는 구례 오미지역(토지면과 마산면 사도리)을 '슬로시티'로 지정받기 위해 한국 슬로시티 본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례 오미지역은 피아골과 문수골 등 수려한 계곡이 있으며 선녀의 금가락지가 떨어진 터라는 뜻의 '금환락지(金環落地)' 명당으로 알려진 운조루와 곡전재가 있다.

특히 운조루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 행랑채의 쌀독에 쌀을 담아 놓고 끼니를 잇기 힘든 사람이 쌀을 퍼 가도록 한 배려와 나눔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앞에는 섬진강이 흐르고 전통 한옥마을, 녹색농촌, 산촌 체험마을, 생태 탐방로, 민박, 특산품 등 전통이 살아있는 친환경적인 지역이다.

전남도와 구례군은 지난해 7월과 11월, 주민을 대상으로 슬로시티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신청 이후 절차인 ▲한국 슬로시티 본부의 사전·예비심사 ▲국제 슬로시티 연맹 실사 ▲국제 슬로시티연맹 총회 의결 등 실사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전남지역에는 2007년 12월 완도, 신안, 담양, 장흥 등 4개 지역이 슬로시티로 지정됐고, 현재 국내에는 10개 지역, 세계적으로는 24개국 151개 지역이 지정돼 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소형 공동주택이 원도심 활성화"

## 순천시

순천시의 원도심 활성화 방법의 하나로 소형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건립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충훈 순천시장이 보궐선거에 당선되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형 공동주택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현재 순천시의 원도심인 덕월동과 풍덕동에 추진중인 소형 공동주택 사업은 주거지역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밀집지역 상권이 아닌 대형 상업시설 위주의 배치로 제대로 된 상권 형성이 어려워 인구 유입이 저조했다.

특히 풍덕동 일대는 대형상가(이마트·홈플러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가의 중·저 상인들은 영업부진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형 공동주택의 건립은 주거뿐 아니라 유동인구의 증가와 영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지역활성화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조충훈 순천시장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서민 임대아파트를 유치하는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주말장터 운영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이 활성화를 위해 6월부터 매주 주말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곡성 기차마을 전통시장 상인회는 곡성군, 특성화시장 사업단과 함께 2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새로운 볼거리의 '주말 장터'를 진행한다.

주말 장터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섬진강 기차마을, 가정역 등 관내 주요 관광지의 관광객까지 불러 모을 예정이다.

특히 전통시장 특성화사업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38호 유랑극단 공연'은 기차시장 이미지를 컨셉화한 스토리텔링형 문화공연이다. 기차가 주는 정감어린 추억의 향수를 모티브로 삼아 추억의 라디오 또는 다방DJ를 연상시키는 형식으로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기차마을 전통시장으로 끌어 모을 수 있는 야외 프로모션형 공연인 '버스킹 공연'을 도입해 주말장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계획이다. '버스킹 공연'은 캠핑카를 무대로 활용해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돌아다니는 주말장터 광고판으로 활용함으로써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kjkim@

## 순천 평곡천 150억원 들여

## 2014년까지 생태하천 복원

순천 평곡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

순천시는 "서면 평곡천이 올해 환경부가 선정한 생태복원 사업 대상 하천으로 전국 10곳 하천에 포함돼 사업비 9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순천시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자체는 지난 29일 경기도 안양시 학운공원내 학의천 홍보관에서 유영숙 환경부장관과 조충훈 순천시장, 박승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국비 90억원과 시비 60억원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평곡천 생태복원 사업을 벌인다.

/동부취재본부=예정열기자 jyj@

# 전 북

##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 만전

### 11일까지 11읍면 순회

### 순창군, 양수장비 점검

순창군은 지속되는 가뭄에 대비해 1일부터 11일까지 읍·면무소에서 관리중인 한해(旱害) 대비용 양수기 장비 점검에 나섰다.

현재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저수율이 낮아져 향후 가뭄이 지속될 경우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점검반은 1개반 2명으로 1일 복흥, 쌍치면을 시작으로 11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엔진과 전기모터 등 424대의 양수장비를 사전 점검한다.

점검반은 양수기의 점화 플러그와 베어링, 전선, 엔진오일 등을 점검하고, 간단한 고장은 현장에서 수리함으로써 가뭄대비 하천수 등 이용시 농가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농기계 순회 수리팀에서 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읍·면 유지관리 예산으로 점검·보수를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 경기전 이달부터 입장료 낸다

## 4개국 언어로 청취 '오디오 가이드' 운영

## 조선왕조 실록 전시 전주사고 관람 가능

1일부터 태조 어진 등 조선왕실 유적이 산재한 경기전(慶基殿·사적 제339호)이 유료화된다.

전주시는 "경기전의 위상 재정립을 통한 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한 세계적인 관광 명소화를 위해 관리개정조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다"고 31일 밝혔다.

관람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 등이며, 전주시민은 50%를 할인해준다.

관람시간은 10월까지 오전 9~오후 7시, 11~2월까지는 오전 9~오후 6시이다. 여름철(6~8월)에는 1시간 연장한다.

경기전 유료화와 함께 전주사고(史庫)의 관람도 가능해진다.

전주사고에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조 실록의 편찬·제작과정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모형을 비롯해 복본화된 조선왕조 실록 등이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시는 유료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위해 '문화해설 프로그램'을 기존 3회에서 5회로 확대 운영하다.

지난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궁중음악을 상설공연,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경기전 주요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 등 4개 국어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하반기 중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비빔밥, 생활도자기, 한지 천연염색 등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패키지 상품도 개발해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태조 어진이 국보 승격을 앞둔 상황이어서 경기전의 문화재적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람 편의를 위해 편의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전은 태조 어진(왕의 초상화·보물 제931호)을 봉안하고자 조선 태종 10년인 1410년에 창건했다가 불에 탄 뒤 광해군 6년인 1614년에 중건한 한옥마을의 대표적인 문화재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사과나무 가지솎기 돕는 공무원

남원시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지난달 31일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인월면 인월리 사과나무 농장을 찾아 가지솎기 작업을 돕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가람 이병기 선생 악극으로 만난다

## 10월말까지 매주 토요일 생가서 공연

국문학자이자 시조시인인 가람 이병기(1891~1968) 선생을 악극으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됐다.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익산지회는 오는 9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익산시 여산면 원수리 가람 이병기 생가 수우재(守愚齋)에서 백세지사(百世之師) 가람 선생의 악극 공연을 한다.

이번 악극은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돼 함흥 형무소에서 1년 가까이 복역하면서 일본 순사와의 설전을 통해 민족의 말과 글을 보존하는 데 노력했던 내용으로 꾸며진다.

악극 공연에 앞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가람 바로 알기, 삼행시 짓기, 가람 시조 탁본 등 가람 선생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진행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단신

### 전북도 홈피 2년 연속 우수 인증 획득

전북도 공식 홈페이지(jeonbuk.go.kr)가 지난달 30일 장애우·고령자의 웹 접근성 품질마크에서 2년 연속 우수 인증을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마크는 장애우·고령자들이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접근성 수준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전북도 공식 홈페이지는 2010년 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획득한 후 인식의 용이성, 운영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 기술의 진보성 등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익산 다문화 지원센터 '거점 운영기관'

익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센터장 채옥희)가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2012년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전북 제 2 거점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이민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문화·제도 등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 국적 취득과 체류허가 등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센터는 한국어 교육 및 한국사회의 이해 등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 김제서 '화재진압 연구 발표대회'

'전국 화재진압 작전전술 연구개발 발표대회'가 전국 17개 시·도 본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0~31일 김제시 금구면 삼성생명연수원에서 열렸다.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화재방어 우수·실패 사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화재진압 ▲초고층 건축물 화재진압 작전전술 등 3개 분야에서 현장 대응의 악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화재진압기법 등이 발표됐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 순창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단' 구성

순창군이 유실수와 산림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갈색날개 매미충' 방제를 위해 자체 방제단을 구성, 최근 공동방제를 실시했다.

순창지역의 경우 인계면 중산·가목마을 일원 30ha에서 '갈색날개 매미충'이 발생해 복분자와 블루베리·매실·감나무 등 주요 유실수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성충이 되는 과정인 6월중순에 2차 방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3차 방제를 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